

## 생선기생충 TV방영후 수요격감

물개가 매개역 물개잡이 허가 주장  
덴마크 대서독 생선수출 전면 중단

문제의 기록영화는 과학자들이 북해에서 갓잡은 생선으로부터 기생충을 끄집어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는데 이같은 기생충은 보통 시장에서 판매과정을 거치는 동안 제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영화가 방영된 이후 서독에서는 생선주문이 대부분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생선전문 음식점은 파리를 날리는가 하면 덴마크의 대서독생선수출이 전면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다.

유럽의 수산업계는 생산판매격감현상을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물개잡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생선기생충의 만연을 선전해온 것이 오히려 생선판매에 부작용을 빚게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표적인 생선기생충인 대구벌레의 경우 이 기생충은 일부기간을 물개 몸속에서 생활하다가 배설물을 통해 물개로 부터 나온 후 생선 살속으로 침투하게 된다.

그러나 생선속의 기생충이 인체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수산업자들은 생선을 잡아먹는 물개

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영국의 수산업자들은 지난 60년대부터 금지돼온 회색물개에 대한 어로작업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요크대 저스틴 쿡 교수는 실제로는 물개가 별 쓸모 없는 생선만을 잡아 먹음으로써 오히려 상업성이 있는 생선의 수를 늘려 주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물개가 과연 유익한가 해로운가를 결정해줄 전체적인 통계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캐나다의 수산업자들은 어류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 대서양연안 해역에서 40,000마리의 회색물개를 잡아 버려야 한다고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겔프대 데이비드 라비뉴 교수는 이들 보호를 위해서는 물개를 잡아버리는 것보다 물에서 기생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의 강구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실제로 유럽의 생선통조림업자들은 초음파를 이용한 기생충탐지, 레이저광선을 이용한 기생충 제거등의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